

해외 직구 6조 원 넘어 건강식품 가장 많이 구매



▲ 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한국의 해외 직구(직접구매) 규모가 6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직구 액수는 47억2,457만 달러였다. 이는 지난해 연평균 원·달러 환율(1,292.2원·종가 기준)을 고려하면 6조 1,000억 원이 넘는 규모다.

해외직구는 2018년 27억5,494만 달러에서 2019년 31억4,346만 달러, 2020년 37억5,376만 달러, 2021년 46억5,836만 달러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해외직구 이용자 수는 지난해 1,557만3천 명으로 1,500만 명을 돌파했다. 5년 전인 2018년(519만 3,000명)과 비교해 3배로 늘었다.

지난해 해외직구 건수(9,612만 건)도 2018년(3,225만5,000건)의 3배 수준으로 증가하면서 1억 건에 육박했다.

지난해 해외직구 금액이 가장 많았던 품목은 건강식품(8억6,200만 달러)이었다. 의류(8억2,200만 달러), 가전제품(4억6,700만 달러), 신발류(4억200만 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5년간 해외직구가 가장 많이 이뤄졌던 품목은 건강식품(35억7,100만 달러), 의류(33억3,800만 달러), 가전제품(20억7,700만 달러) 등이었다.

해외직구 이용이 늘면서 최근 5년간 관련 소비자 민원도 10만 건을 넘어섰다. 2018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민원은 10만2,109건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5년간 취소·환급·교환의 지연 및 거부 관련 민원이 4만3,298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약금·수수료 부당청구 및 가격 관련 민원(1만 5,840건), 배송 관련 민원(1만2,496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 작년 미국 농산물 수입액 세계 6위

작년 한 해 동안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전체 농산물이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은 작년에 중국, 멕시코, 캐나다, 일본, 유럽 연합(EU)에 이어 전세계에서 미국산 농산물의 6위 수출시장에 올랐다.



▲ 서울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소고기 판매 코너. 사진=뉴스1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농무부는 전날, 작년 한 해 동안 한국이 미국에서 사들인 농산물 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한국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은 지난 2013년 59억7천만 달러에서 작년 100억5천만 달러로 68% 이상 증가해, 지난 10년간 연평균 5.3%씩 늘어났다.

특히 소고기 수입이 전체 미국 농산물 수입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등 한국은 2년 연속으로 전세

계에서 미국산 소고기를 가장 많이 사들인 국가로 집계됐다. 한국이 수입한 미국산 소고기는 총 27억 달러(29만1천748t)로 이는 전체 미국산 소고기 수출액(116억 8천만 달러)의 23%를 약간 넘는 규모다. 지난 2013년 6억1천만 달러였던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은 10년간 343% 증가했다.

한국에 이어 일본(23억2천만 달러), 중국(21억6천만 달러), 멕시코(9억7천만 달러), 캐나다(8억3천만 달러) 등이 작년 미국산 소고기의 5대 수출시장에 올랐다.

한국이 소고기에 이어 미국에서 많이 수입한 농산물은 돼지고기(6억1천만 달러), 유제품(5억7천만 달러), 옥수수(5억1천만 달러), 밀(4억7천만 달러) 등이 있다.

서울 소형 빌라 거래 급증 … 금리 인상 등 원인

지난해 월세 100만 원이 넘는 서울 소형 빌라(전용 면적 60m²이하) 거래가 급증해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인상으로 대출이자 부담이 커진데다가 전세 사기 우려도 겹치면서 월세 선호 현상이 심화한 탓으로 풀이된다.



▲ 서울의 빌라 밀집지역 모습. 사진=뉴시스

터 2019년까지 매년 1천 건을 밀돌다가 2020년 1천27건, 2021년 1천693건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 3천 건 이상으로 껑충 뛰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월세 100만 원이 넘는 소형 빌라 거래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강남구(791건)였다. 이어 송파구(458건), 서초구(390건), 마포구(166건), 광진구(156건), 중랑구(135건), 강동구(97건), 용산구(92건), 동작구(88건), 강서구(87건) 등 순이었다.

지난해 월세가 가장 높은 소형 빌라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우리엘' 전용면적 27.95m²(4층)로 지난해 4월 보증금 800만 원, 월세 450만 원에 월세 계약이 이뤄졌다.

프리미어 공인세무 그룹

세금보고 미국 전 지역 서비스

- 세금보고 ■ 법인설립 ■ 해외자산보고
- 연체세금 해결 ■ 세무감사대행 ■ 상속, 증여세금보고

예약 후 방문
상담 가능

PREMIER TAX GROUP (714)530-2033
8942 Garden Grove Blvd. #203, Garden Grove, CA 92844

각종 세금 관련 상담 및 문의
info@isemusa.com
taxcapital@gmail.com